

사회복지시설 탐방 17 창길잡이의 집 원장 김성진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창길잡이의 집은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기관입니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창길잡이의 집(원장 김성진)은 아동보호 시설로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과 지역사회의 올바른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다.

창길잡이의 의미는 인간의 삶에서 아동시기는 그 사랑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어려운 아동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들에게 밝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지어진 이름이다.

창길잡이의 집은 1997년에 3명의 아동들과 시작되었으며, 비인간 시설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3월에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이 시설은 시설대표인 김성진(46·원안사진) 원장을 비롯, 시설장인 김나나 원장과 사회복지사 3명, 김 원장의 부인을 포함 6명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현재 29명의 정원에 2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등록된 아동들과 더불어 19세 이상의 성인들까지도 자립을 하기 전까지 보살펴주고 있다. 이 중에는 김 원장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는 지체장애를 가진 할아버지가 포함돼 있다.

김 원장은 “원래는 19세 이상의 아이들은 시설을 나가 독립해야 하나 시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치체형 보살펴온 터라 기반을 잡을 때까지 보살피고 있다”며 “8년 동안 8명의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독립시킨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아동들의 자립심과 사회적인 일꾼으로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 일정금액을 아동들 앞으로 적립시켜주고 있다.

김 원장은 “아동들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고 있다”며 “소홀농협과 연계 1인당 1계좌씩 만들어 시설을 나갈 때 손에 쥐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장은 아동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훈을 정해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다.

이 시설의 가훈은 거짓이 없는 삶,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베풀며 살자, 김 원장에 의하면 형과 동생들이 잘 이끌며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창길잡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달 평균 7백 여 만원의 금액이 소요된다.

김 원장은 “한달에 아동들의 보조금이 1인당 10~30만원과 후원금 230만원을 포함해 총 680여 만 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한달에 7백 여 만원의 소요비용이 산출되지만, 최근 운영하고 있는 장군내 집(식당)의 운영도 침체되어있는 터라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가 힘이 부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최근 전국 아동보호시설에서의 현상과 마찬가지로 결손가정아동들이 주 대상이다. 김 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최근 사회현상과 맞물려 편부나 편모의 환경으로 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창길잡이의 집은 단순한 아동보호 시설이 아니라 그룹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길잡이의 집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시설에



창길잡이의 집은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원안은 김성진 원장)

인가시설에서 정식인가시설로 신

고했다.

김 원장은 “마음의 집을 던 것 처럼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의 건립과 아동들이 편안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주위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창길잡이의 집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시설에

는 노력봉사과 더불어 아동들과 공부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함께 돌봐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김 원장은 “입소대상이 주로 아동들이고 인가시설이 되다보니 함께 공부해주고 행정적인 보조 업무를 지원해줄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창길잡이의 집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시설에

포천 심터

장점이 독이 될 때가 있다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열띤 생각할 때 약속과 기다림은 별 상관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생각해보자. 상대방이 번번히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는가? 혹시 “보나마나 또 늦을거야. 나도 일찍 나갈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

사람들은 나 보다 뭔가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약속을 잘 지키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항상 청결하다거나, 일을 잘한다거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남이 잘하지 못하고 남이 하기 싫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워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장점들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우월감에 빠지거나 상대방을 폄하할 때이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장점이 더 이상 장점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

기가 되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다녔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점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갈수록 그를 피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봉사활동을 내세우며 타인에게도 봉사활동을 강요하기 때문이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청결한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 하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할 때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을 이해할 때이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 묵묵히 내 할 일을 해 나갈 때 장점은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서울 동부권 4개 경찰서 우금2리와 자매결연 농촌사랑 1사1촌 ... 都農상생의 길 열려



가산면 우금2리(이장 조석연)와 서울동부권 4개 경찰서는 지난 21일 마을 안 우금농원에서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석연 우금2리 이장과 신정배 서울동부경찰서장이 자매결연패를 교환하고 있다.

가산면 우금2리(이장 조석연)와 서울동부권 4개 경찰서와 간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이 지난 21일 마을 안 우금농원에서 마련됐다.

포천시 박운국 시장과 신정배 서울동부경찰서장 등 각급 기관 단체

장 및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결연식은 서울 동부권(동부·성동·용산·중랑)경찰서와 우금2리간 동·농상생의 Win-Win 운동을 실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결연식을 통해 서울 동부권 경찰서와 우금2리는 농산물 구매

및 농촌일손돕기 등 지원과 질 좋은 농산물 제공 등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및 판매장소협조, 농촌일손돕기, 가족 단위봉사활동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신정배 동부경찰서장은 “농촌은 최근 산업화와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결연을 통해 농촌의 경제활성화와 신선한 산지 농산물을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석연 이장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농촌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들을 협력해 풀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금2리는 131가구 38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옥한 농경지에 퍼두 및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이다.

또한 신정배 서울동부경찰서장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포천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지heb 기자 94spice@hanmail.net

송경희씨 한겨레 서예대전 초대작가 選定 3년간 한겨레 서예대전 출품 결실 이뤄



한겨레 서예대전 초대작가 송경희(左)씨와 입선한 최덕순(右)씨.

동남중·고 평생교육 서예교실(지도교사 한영수)의 송경희(58)씨가 지난달 24일 최종 발표된 한겨레 서예대전에서 초대작가로 선정돼 서예교실 회원들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송경희씨는 3년전부터 작품을 출품해 왔으며 특선 2회, 우수상 1회, 입선 3회 등 꾸준한 노력으로 총점 12점 이상으로 대회 기준을 통과해 초대작가로 선정됐다.

송경희씨는 “꾸준히 서예교실에 다닌 것이 뜻밖의 좋은 결과로 나타나 기쁘다”며 “회원모두와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서예교실을 통한 실력과 정서함양은 물론 회원간 친목과 화합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겨레 서예대전에서는 참가한 서예교실 회원 중 최덕순(54)씨가 입선해 회원들의 기쁨은 더욱 컸다.

동남중·고 평생교육 서예교실은 1997년 설치되었으며 동남중·고 학부모뿐 아니라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고, 기초와 고급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수업이 진행된다. 지heb 기자 94spice@hanmail.net

전몰호국영령에게 감사와 경의를 6·25전쟁 제55주년 기념행사



포천시재향군인회는 6.25전쟁 제55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포천시민월야트 소극장에서 6·25전쟁 제5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포천시재향군인회(회장 이광호)는 6.25전쟁 제55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포천시민월야트 소극장에서 참전유공자 및 재향군인 500여명이 참석해 6·25전쟁 제5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참전 유공자인 장병수씨의 6·25전쟁 회고와 이광호 재향군인회장의 대회사, 관내 유관 기관 단체장의 기념사, 참전유공자 꽃다발 증정, 6·25참전원로의 안보확립결의문 낭독, 만세삼창으로 진행됐다.

이광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55년 전 우리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

령과 남은여생을 오직 국가안위를 위해 노력하시는 참전용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이 땅에서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훈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젊은 세대들에게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6·25참전원로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고 북핵 저지와 평화적 해결에 회원 모두가 앞장 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하자”고 다짐했다.

지heb 기자 94spice@hanmail.net

교통질서는 당신의 인격

교통캠페인 및 7주년 기념식

(사)교통장애인협회포천시지회(회장 유장주)와 (사)한국교통환경시민협회포천시지부(회장 이정동)는 지난 23일 포천시 여성회관과 포천시내 일원에서 교통캠페인 및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교통질서와 교통평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해 이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식사 후 포천시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의 협조 속에 포천에서 송우리간 거리캠페인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창립 7주년을 맞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는 지난 1995년 포천시시가 장애인 등대회로 최초 모임을 시작, 1998년 인가받아 제1대 이충환 지회장과 1999년 제2대 유장주 지회장이 현재까지 이끌고 있다.

지heb 기자 94spice@hanmail.net

바로잡습니다

6월20일자 3면 유계필 서울체신청장을 ‘유필계 서울체신청장’으로 정정합니다.

대한감리회 내촌교회 신축기공식 가져 내년5월 완공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 기대



기독교 대한감리회 내촌교회는 지난 26일 일요일 오후4시 내촌면 내리 482번지 일대에 내촌교회 신축기공식을 하고 관내 교회목사와 장로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내촌교회(담임목사 김창성)는 지난 26일 일요일 오후4시 내촌면 내리 482번지 일대에 내촌교회를 신축기로 하고 관내 교회목사와 장로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맹현영 내촌면장과 김영대 포천시의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공식에서 김창성 목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이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주민 문화사랑방 등 교

회 공간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내촌교회가 신축되면 내촌 시가지에서 가장 고층인 5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건축디자인 또한 보다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편, 신축될 내촌교회는 1층 식당 및 다목적실, 2층 소예배실 및 사무실 문화공간, 3층 대예배실, 4층 관예배실, 5층 사택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단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원들은 지난 22일 선단동소재 프란디스에서 작은사랑 나눔 일일차집 봉사 활동을 펼쳤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준비했어요” 선단초 어머니회 작은 사랑 나눔 일일차집

선단초등학교 어머니회(회장 장선숙)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천시 선단동소재 프란디스에서 작은사랑 나눔 일일차집을 개최한다.

선단초 재학중인 불우학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일일차집은 선단초 어머니회가 주최하고 선단초 총동문회(회장 서정배)와 운영위원회(위원장 나복현), 체육진흥회(회장 김경남)가 후원했다.

장선숙 어머니 회장은 “이번 행사는 선단초에서 처음 마련한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학교 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토대로 선단초

에 불우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복현 운영위원장은 “어머니회원들의 아낌없는 봉사가 보다 많은 불우학생들에게 혜택으로 주어지길 바란다”며 “학부모들의 힘을 모아 선단초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일차집은 20여명의 어머니회원들의 봉사와 노력으로 진행됐으며, 800여만원의 기금이 모아졌다. 이 기금은 선단초의 장애를 가진 학생의 의료기구 구입과 효순이 외 1명의 치료비로 7월 초 전달 될 예정이다.

지heb 기자 94spice@hanmail.net



가산초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가 주최하고 가산초총동문회, 가산청년회가 주관하여 가산초등학교 2학년 이효섭군 돕기 일일차집을 지난 28일 개최했다.

가산초 투병어린이 돕기 일일차집 열어 근육종으로 고생하고 있는 2학년 어린이 돕기

가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백승룡), 어머니회(회장 이은미), 체육진흥회(회장 최홍화)가 주최하고 가산초총동문회(회장 가산청년회(회장 )가 주관하여 가산초등학교 2학년 이효섭 군 돕기 일일차집을 지난 28일 개최했다.

지난 2월 수술을 받은 이 군이 근육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4월에 접한 가산초등학교에서는 이 군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을 전달하고자 이날 일일차집을 열게 된 것. 이날 일일차집을 연 이은미 어머니회장은 “이 군은 앞으로 1년이 치료의 고비가 된다며 현재 항암치료 중인 이 군이 완쾌 될 수 있도록 가산면민은 물론 포천시민의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일차집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이 군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